



건강하게 자라고 마음껏 펼치도록

아이들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배우며 저마다의 속도로 성장한다.
작은 변화와 신호에 귀 기울이는 세심한 관심은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아이들의 오늘은 결국 눈부신 내일로 이어진다.

03

Intro

아이들 발소리는
도시 심장소리

12

Health 1

아이의 바른 성장,
통합 진료로 답하다

18

Health 4

소아비만,
성장과 대사 건강을
위협하는 신호

24

Korean Medicine

소아 식욕부진,
단순 편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32

Essay

한 해의
가운데에서

40

Book

마음 글밭

04

Theme

건강하게 자라고
마음껏 펼치도록

14

Health 2

우리 아이 발끝이
안으로 향한다면?

20

Health 5

‘아이만 좋아진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 말이 잘못된 이유

26

Focus

첨단 장비와
인술의 융합을 통한
수술의 진화

34

Temple

빼곡하게 들어 찬
마음 서랍을
비우는 절집

42

News

동국대학교의료원
뉴스

08

Good Doctor

아이들의 성장시계를
살피는 의사

16

Health 3

우리 아이 숨길을
지키는 약속

22

Health 6

카페인 음료,
청소년에게
괜찮을까요?

30

Team

질병을 넘어
사람을 보다

38

Law

채무자의 숨겨놓은
가등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45

Donation

보시공덕

아이들 발소리는 도시 심장소리

20여 년 전의 영상 하나를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는데요. 동네 이웃이 자신의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옛 영상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다며 보내준 거지요. 뭐가 그리 재밌는지 시종 깔깔대는 아이들, 그리고 그 옆에서 함박웃음을 터트린 엄마들. 우리 아이들이 참 예뻐구나, 우린 정말 젊었구나. 영상에서 모처럼 옛 추억 퍼즐을 맞춰가며 따뜻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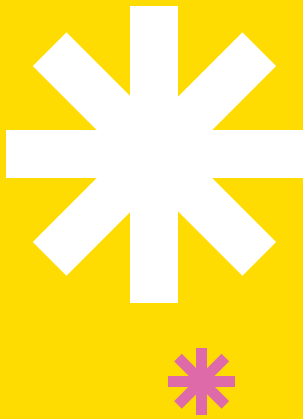
1990년대 후반, 반듯하고 깨끗한 신도시에 모인 이웃들의 아이들은 고만고만했습니다. 한두 살에서 많아 보자 서너 살 차이의 아이들은 금세 서로 친구가 됐지요. 눈만 뜨면 놀이터로 달려 나가는 아이들의 뒤통무니 쫓아 나온 엄마들은 놀이터 벤치 고정 멤버가 됐고요. 낮을 익히고 커피를 나누고, 아이들이 놀다가 화장실이 급하다면 가장 가까운 집으로 달려 들어가고, 모래 묻은 신발로 드나든 게 미안해 점심에 수제비를 끓여 이웃들을 초대하고... 그렇게 우린 문턱 없는 이웃이 됐답니다.

어린이가 된 아이들은 동네 작은 도서관에 모여들었습니다. 학교와 집을 오가다 들러 마음 가는 대로 책을 읽고 뒹굴다가 친구들이 모이면 옆 공터에서 줄넘기도 하고 공도 차고, 지나가던 엄마들이 아이들 입에 아이스크림 하나씩 물려주면 어스름해질 때까지 동네는 아이들 소리로 꽉 찼지요. 작은 도서관은 아이들에게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불을 밝혀주는 동네 가로등이었고요.

아이가 어린이로, 다시 청년을 지나 어른이 됐네요. 그 사이 도시 곳곳의 나무도 아이들 따라 훌쩍 자라 제법 넉넉한 도심 숲을 이뤘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떠난 놀이터와 작은 도서관엔 여전히 아이들의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채워집니다. 그 시절 우리의 든든한 율타리가 돼주었던 이웃들처럼, 또 누군가의 관심과 배려 속에 아이들은 청년으로, 어른으로 자라겠지요. 아이들의 발소리는 도시의 생명을 간직한 심장 소리입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마음껏 펼치도록



＊ 성장의 시간 속에서

아이들은 늘 자란다. 어제보다 조금 더 높아진 시선과 넓어진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 학교 운동장을 누비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세상을 배우는 사이, 어른들이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순간에도 아이들의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간다.

성장은 단순히 키가 크는 물리적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뼈와 근육이 골격을 갖추고, 신체 기관과 면역 체계, 그리고 호르몬이 자리 잡는 과정은 아이가 세상을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기도 하다.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는 몸의 구조와 기능들은 매일 새로운 생명력을 만들어 낸다.

이 시기의 몸은 무엇보다 섬세하기에, 작은 생활 습관이나 사소해 보이는 몸의 신호 하나가 아이의 전체적인 성장 궤적에 깊은 흔적을 남기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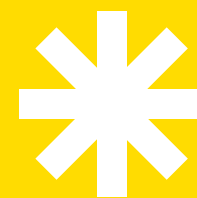


* 평탄치 않은 길 위의 든든한 편

아이들이 자라는 길은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다. 때로는 반복되는 건강 문제나 성장의 지연으로 고민이 깊어지기도 하고, 사춘기에 접어들며 신체 변화와 함께 마음의 소란을 겪기도 한다. 학업 스트레스와 친구 관계의 갈등 역시 아이들에게는 적지 않은 무게로 다가온다.

이러한 변화는 성장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환일 수 있지만, 결코 '다 지나가는 일'이라며 쉽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어른들의 잣대로 아이의 고단함을 가늠하기보다, 서툰 몸짓과 예민한 마음 뒤에 숨겨진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가장 흔들리는 순간에도 혼자가 아님을 느낄 때, 아이는 비로소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 앞에 설 용기를 얻는다.

아이의 건강을 돌본다는 것은 질병의 치료를 넘어, 성장의 흐름 속 미세한 변화를 관찰 하며 아이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곁에서 돕는 정성스러운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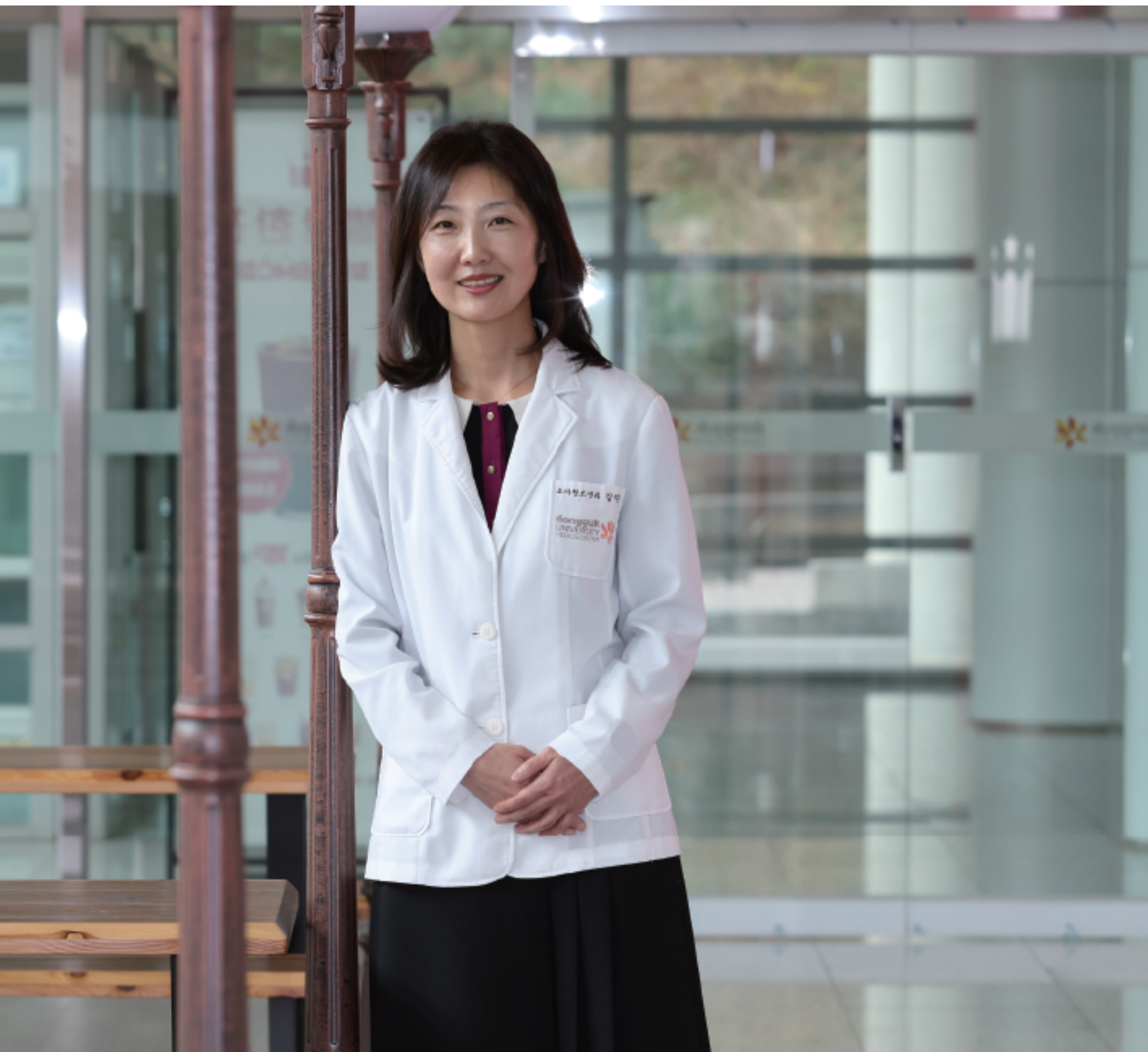
* 아이들의 내일을 기대하며

아이의 건강을 살피는 일은 그들이 앞으로 펼쳐갈 삶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켜내는 일이다. 튼튼한 몸은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되고, 안정된 마음은 낯선 환경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뿌리가 된다. 신체적·정신적 균형이 잘 잡힌 아이일수록 자신의 잠재력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할 끈기를 갖추게 된다.

아이들의 성장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긴 호흡으로 함께 걷는 여정이다. 우리는 아이들의 오늘을 함께하며 그들이 만들어갈 눈부신 내일의 첫 페이지를 함께 써 내려가야 한다. 세심한 관심과 체계적인 조력은 아이가 세상을 향해 뻗어 나갈 가장 깊고 단단한 토양이 될 것이다.

아이들은 자신만의 색깔로 세상 속에서 피어난다.
“건강하게 자라고 마음껏 펼치도록” ✨





너무 늦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게

아이들의 성장시계를 살피는 의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지현 교수

중학교 시절,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막연하지만 단단한 꿈을 품었던 소녀가 어느덧 베테랑 의사가 되어 아이들의 ‘더딘 성장’과 ‘너무 빠른 성숙’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세심한 의술을 펼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김지현 교수를 만나 그가 진료실에서 써 내려간 아이들과의 소중한 기록을 들어보았다.

“어린이들은 몸이 아프면 울기도 하고 징그린 채 병원을 찾지만, 병만 나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해맑게 웃으며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고 진료실을 나섭니다. 그 모습이 너무 좋아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되었어요.”

어린 환자들의 순수한 생명력과 정직한 회복력에 반해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길을 택했다는 김지현 교수.

시대의 변화가 가져온 성장의 속제

최근 진료실을 찾는 발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성조숙증과 성장 지연이다. 이는 단순히 유전적인 요인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의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

들면서 소아 비만과 2형 당뇨병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영양 과잉과 운동 부족 등의 요인으로 시춘기는 앞당겼고, 성조숙증도 늘어났다.

김 교수는 아이가 너무 일찍 자라면 오히려 ‘자라날 수 있는 총시간’이 줄어든다고 경고한다. 여아는 초등학교 2학년 이전, 남아는 3학년 이전에 신체 변화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성조숙증 치료는 아이가 제 속도에 맞춰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며 자랄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이 늘어나면서 쌍둥이 출생이 많아졌는데, 제한된 공간에서 두 아이가 자라다 보니 이 아이들은 대부분 작게 태어난다. 출발선에서부터 키와 몸무게가 작다 보니 부모들의 걱정이 깊다.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성장 주사

성장이 너무 더뎠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김 교수는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편이다. 주사에 대한 공포가 큰 아이들에게 강제로 치료를 권하지 않고, 대신 유치원생 정도만 되어도 눈을 맞추고 차근차근 설명한다.

“성장 호르몬 주사는 종류가 참 많아요. 저는 부모님과 아이에게 직접 검색해 보고 마음에 드는 것 두 가지를 골라 오라고 숙제를 내줍니다. 그리고 치료의 효과와 필요성을 아이에게 충분히 설명하죠. 신기하게도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결정한 아이들은 주사를 무서워하기보다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잘 챙깁니다. 또래 친구들이 치료받고 훌쩍 자란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며 마음을 열기도 하죠.”

예상 신장이 160cm 미만으로 예측되어 매일 주사를 맞아야 했던 한 남자아이는, 1년 뒤 친구들과 키가 비슷해지자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며 치료의 주체가 되었다. 김 교수에게 치료는 단순한 약물 투여가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몸을 긍정하고 돌보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1형 당뇨, 평생을 함께할 귀찮은 친구

내분비 전문의로서 김 교수가 가장 마음을 쓰는 환자들은 소아 1형 당뇨 아이들이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는 이 병은 식습관 때문이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이나 면역 체계의 문제로 발생한다. 김 교수는 이 아이들에게 당뇨를 ‘귀찮은 친구’라고 부르자고 제안한다.

“먹을 때마다 탄수화물 양을 계산해서 스스로 주사를 놓아야 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춘기 시절 당뇨가 찾아와 좋아하던 운동을 포기해야 했던 아이, 생리 주기마다 호르몬 변화로 혈당이 널뛰어 한 달에 한두 번씩 응급실에 실려 오던 소녀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 인연은 깊고 단단하다. 2012년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 부임했던 당시 만났던 꼬마 환자들은 이제 어엿한 대학생, 직장인이 되었다. 스무 살이 넘으면 성인 내과로 옮겨가야 하지만 아이들은 “교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신다”며 여전히 소아청소년과 진료실을 찾는다. 김 교수는 그들이 성인이 되어도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의사로 때로는 이모처럼 그 곁을 지켜준다.

부모가 되어보니
이제야 비로소 들리는 목소리

젊은 의사 시절의 김 교수는 원칙주의자였다. 의학적 판단이 최우선이었고, 치료 지침을 따르지 못하는 부모님들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 역시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되면서 진료실의 공기는 달라졌다.

“이제는 진료실에서 부모와 자녀가 팽팽하게 대립할 때, 양쪽의 마음이 다 보여요. 부모님은 아이 걱정엔 잔소리가 늘고, 아이는 그런 부모님이 답답해 입을 닫아버리죠. 그럴 때 저는 부모님들께 말씀드려요. ‘부모는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이 세상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이의 말을 먼저 다 들어주세요’라고요.”

김 교수는 진료실을 찾은 보호자들에게도 따뜻한 신뢰를 당부한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중에 아이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 의사를 믿고 치료의 과정을 함께 견뎌달라는 부탁이다.

일상의 소중함을 지키는 세 가지 처방전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김지현 교수는 모든 아이와 부모님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비결을 전했다. 거창한 보약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첫째, 하루 세 끼 건강하게 먹기. 간식은 우유와 바나나 하나 정도로 충분하다.

둘째, 숨찬 운동 주 3회. 스마트폰과 미디어 노출로 움직임이 적어진 것이 만병의 근원이다.

셋째, 햇빛 쬐기와 숙면. 낮에 햇빛을 충분히 봐야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이는 곧 성장 호르몬의 원활한 분비로 이어진다.

김 교수는 어려서부터 운동하는 습관들이기를 위해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미국 연수 시절, 매일 3마일(약 5km)씩 뛰던 미국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의 체력과 습관은 그때 만들어지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앞서 공부만 하기보다, 땀 흘리며 뛰노는 즐거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춘을 바쳐 지켜낸 아이들의 웃음

의사라는 직업은 늘 긴장의 연속이고 책임감이 막중하다. 김지현 교수도 의사로서 교수로서 논문을 쓰고, 수업을 하며, 빠르게 변하는 치료법을 익히기 위해 학회 활동도 쉬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본인의 청춘은 병원에서 다 보낸 것 같아, 딸이 의사가 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는 김 교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진료실로 향한다. 자신의 치료가 끝났음에도 동생 진료를 따라와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아이들, 그리고 자신이 가르친 제자가 훌륭한 의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행복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제 속도에 맞춰 건강하게 피어날 수 있도록, 김지현 교수의 진료실 불빛은 오늘도 따뜻하게 켜져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지현 교수
전문진료분야 ▶ 소아내분비, 갑상선질환, 소아당뇨병, 성장지연, 성조숙증, 성장클리닉



아이의 성장은 하루하루 눈에 띄게 자라는 듯하면서도, 어느 순간 부모에게 걱정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또래보다 키가 작은 것은 아닌지, 자세가 한쪽으로 기울어 보이지는 않는지, 사춘기 변화는 정상적인지 궁금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성장기에는 이러한 변화들이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세심한 관찰과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신호가 되기도 한다.

아이의 바른 성장, 통합 진료로 답하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아바른성장센터

아이의 성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키’다. 하지만 성장기에는 키 성장뿐 아니라 사춘기 발달, 척추와 하지 정렬, 자세와 체형 변화까지 동시에 진행된다. 이처럼 신체의 여러 요소가 함께 변화하는 시기에는 키 성장만을 관리하거나 척추·자세 문제만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이러한 성장기의 특성을 고려해 소아·청소년의 성장과 체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소아바른성장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저신장과 성장지연, 성조숙증 등 성장·사춘기 질환부터 척추측만증, 하지 정렬 이상(O·X자 다리), 평발, 자세 이상까지 다양한 문제를 다학제적으로 평가하고 치료하는 통합 성장 센터다.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성장·체형 문제

저신장 및 성장지연

또래 평균에 비해 키가 현저히 작은 경우, 연간 성장 속도가 감소하거나 성장곡선이 하향하는 경우, 성장호르몬 결핍증이나 특발성 저신장증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사춘기 발달 이상

여아에서 8세 이전, 남아에서 9세 이전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조기 성발달(성조숙증)이나 사춘기 발달이 또래에 비해 늦거나 진행 속도가 비정상적인 경우이다.

척추 및 체간 정렬 이상

학교 건강검진 등에서 척추측만증 의심 소견을 받았거나 어깨높이 비대칭, 견갑골 돌출, 골반 기울어짐 등이 관찰되는 경우이다.

하지 및 족부 정렬 이상

성장기 O자·X자 다리, 흰 다리 등 하지 정렬 문제와 평발, 보행 이상 등 족부 역학 이상도 주요 진료 대상이다.

자세 및 체형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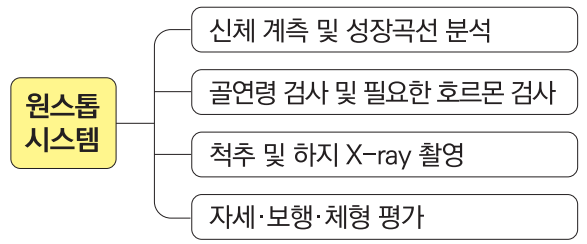
장시간 스마트기기 사용이나 앉은 자세로 인해 나타나는 거북목, 라운드 숄더, 구부정한 자세 등 자세 문제와 함께 반복적인 근골격계 통증이 동반될 때다.

소아청소년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 협진 시스템

소아바른성장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다학제 협진 진료다.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성장곡선 분석과 골연령 검사, 성장호르몬 및 내분비 검사를 통해 성장과 사춘기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재활의학과에서는 자세와 보행, 근력과 유연성을 평가해 운동치료와 물리치료, 자세교정 교육 등을 시행한다. 또한 소아정형외과에서는 척추 및 하지의 구조적 변형과 족부 정렬 이상을 영상학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교정 수술과 사후 관리를 담당한다. 이러한 협진 시스템을 통해 성장과 체형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

한 번의 방문으로 가능한 원스톱 검사

보호자와 환자의 내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번의 방문으로 성장과 체형에 대한 주요 검사를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을 설계해 진단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했다.



진료일정
월(오후)
소아청소년과 김지현 교수, 정형외과 이상형 교수
화(오후)
소아청소년과 정유진 교수, 정형외과 이상형 교수



맞춤형 치료와 장기 추적 관리

소아바른성장센터는 성장 속도, 사춘기 진행 정도, 척추 및 하지 정렬 상태, 근력과 유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환자별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필요에 따라 성장호르몬 치료, 사춘기 조절 치료, 재활치료, 보조기 치료, 수술적 교정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성장기 전 과정에서 정기적인 추적 평가를 통해 성인 신장 예측과 척추 변형 진행 여부, 기능적·미용적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성장 종료 이후에도 필요한 상담과 추적 관찰을 이어간다.

성장은 아이의 몸과 마음이 균형을 이루며 건강하게 자라는 전 과정이다. 성장기에는 작은 변화도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기에 세심한 관찰과 적절한 시기의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소아바른성장센터는 아이들의 성장과 체형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자 한다. 🌸

우리 아이 발끝이 안으로 향한다면?

아이가 걸을 때 발끝이 안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소아정형외과를 찾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걸을 때 발이 안쪽으로 틀어지는 보행 형태를 안짱걸음, 의학 용어로는 내족지 보행(Intoeing Gait)이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치료 없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호전됩니다. 하지만 원인과 경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상황에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짱걸음이란 무엇인가요?

정상적인 걸음걸이는 발끝이 약간 바깥쪽을 향하는 것입니다. 안짱걸음은 이와 반대로 발이 안쪽으로 틀어져 걷는 상태를 말하며, 영유아기부터 학령기 아동에게서 흔히 발견됩니다. 선천적인 자세 문제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성장 과정에서 뼈와 근육이 발달하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이 서로 걸려 자주 넘어지거나, 바닥에 앉을 때 양 무릎을 바깥으로 벌리고 발은 안쪽에 두는 이른바 W자 앉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안짱걸음의 원인은 문제가 생긴 위치에 따라 구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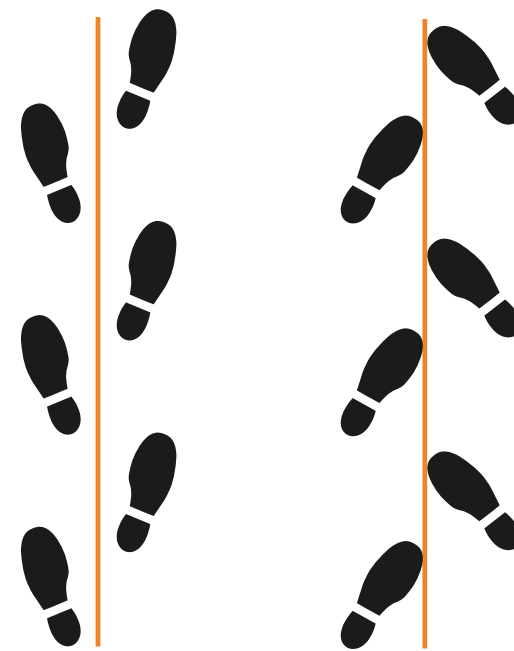
첫째, 대퇴골 내염전 허벅지뼈(대퇴골)가 안쪽으로 과도하게 틀어진 경우로, 안짱걸음 원인 중 가장 흔합니다. 주로 3~6세 사이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8~10세 전후로 뼈가 성장하면서 자연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둘째, 경골 내염전 정강이뼈(경골)가 안쪽으로 틀어진 경우입니다. 둘 전후의 영아에게서 자주 나타나며, 역시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교정됩니다.

셋째, 중족골 내전증 발 앞부분이 안쪽으로 휘어진 경우입니다. 신생아나 영아기에 자궁 내 자세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발의 유연성에 따라 자연 호전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부분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보조기나 특수 깔창, 교정 신발이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재까지의 의학적 근거에 따르면 이러한 보조 장치들이 안짱걸음 교정에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정상보행
Normal Gait

안짱보행
Intoeing Gait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의 교정입니다. W자 앉기는 허벅지뼈의 내염전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 자세를 피하고 양반다리나 무릎을 앞으로 향한 자세로 앉도록 유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문의 상담 후 허벅지와 골반 주변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는 스트레칭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짱걸음은 성장과 함께 저절로 좋아지지만, 원인에 따라 일부에서는 적극적인 치료나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원인별 치료 기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만 3세 이후까지도 발 앞부분이 심하게 휘어진 경우(중족골 내전증) 뼈를 바로잡는 수술을 고려합니다. 만 8세가 지났는데도 정강이뼈의 뒤틀림이 심해(경골 내염전) 자주 넘어지거나 운동·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수술로 뼈의 방향을 교정해 줄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후에도 허벅지뼈의 뒤틀림 각도가 심하고(대퇴골 내염전), 고관절·무릎 통증이 지속되거나 넘어짐이 반복되어 운동과 학교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 수술을 고려합니다. 단, 외관이 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보조기나 깔창으로는 교정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기다린 후에도 증상이 지속될 때만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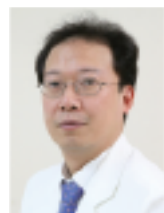
이럴 때는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주세요

대부분의 안짱걸음은 경과 관찰로 충분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소아청소년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 안짱걸음으로 인해 자주 넘어지거나 보행에 뚜렷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양쪽이 아닌 한쪽 다리에서만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 만 8세 이후에도 안짱걸음이 심하게 지속되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것들

아이의 걸음걸이를 일상 속에서 꾸준히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화가 느껴질 때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두면 진료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성장 과정에서 뼈와 근육이 조화롭게 발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야외 활동과 다양한 신체 놀이를 권장합니다. 안짱걸음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매우 흔한 보행 패턴입니다. 선불리 불안해하기보다는 아이의 성장 과정을 따뜻하게 지켜보면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와 함께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이상형 교수

전문진료분야
소아청소년(고관절탈구,
뇌성마비 및 근골격계질환,
사지변형 교정, 평발,
선천성 족부질환),
족부 및 족관절(무지외반증,
족부변형, 족관절 인대파열,
발목관절염, 스포츠손상 및
관절경, 당뇨발)



우리 아이 숨길을 지키는 약속

소아 천식의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관리

기침이나 쌉쌉거림이 반복된다면 단순 감기로 넘기지 않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소아 천식은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폐 기능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작은 숨소리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정확한 진단과 꾸준한 치료로 건강한 성장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절기마다 반복되는 기침, 단순한 감기일까요? 밤이나 새벽이 되면 기침이 심해지고,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는 아이를 보면 부모님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잠을 자다가 기침으로 자주 깨거나, 운동 후 숨가쁨이 두드러진다면 단순한 감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흔히 ‘기관지가 약하다’거나 ‘감기가 오래 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3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거나 숨 쉴 때 쌉쌉거리는 소리가 반복된다면 소아 천식을 반드시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소아 천식, 왜 초기에 발견해야 할까요?

천식은 기관지에 만성 염증이 생기면서 기도 벽이 부어오르고, 기도 근육이 수축하여 공기의 흐름이 제한되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찬 공기, 바이러스 감염, 미세먼지, 알레르기 물질 등 다양한 자극에 의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는 성인보다 기도가 좁고 면역 체계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아 작은 자극에도 증상이 쉽게 나타납니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폐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치료의 출발점입니다. 천식은 증상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기도의 상태와 염증 정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폐 기류용적검사는 기도의 폐쇄 여부를 확인하는 기본 검사로, 치료 전후 변화를 비교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기관지유발 시험은 기도의 과민성을 직접 확인하여 진단의 정확도를 높여주며, 호기산화질소검사는 기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은진 교수

전문진료분야

호흡기 질환
(천식, 기관지 폐렴, 부비동염)

알레르기 질환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식품 알레르기, 면역요법)



‘크면 낫는다’는 말, 정말일까요?

소아 천식에 대해 흔히 ‘크면 저절로 낫는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증상이 호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보다는 기관지와 폐의 성장 속도 차이에 의해 일시적으로 증상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사춘기 이후나 성인이 되어 다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폐 기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추적 관찰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꾸준한 관리가 아이의 숨을 지킵니다

천식 관리는 단기간에 끝나는 치료가 아니라 꾸준함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중단하기보다는 의료진과 상의하여 단계적으로 치료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내 환경 관리, 외부 알레르겐 회피, 올바른 흡입기 사용법 교육 역시 치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의 숨소리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 그리고 일상 속 세심한 관리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천식을 가진 아이들도 또래와 다름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안전하고 편안한 숨을 지키는 일, 그 시작은 관심과 꾸준함입니다. 🌸

소아 천식 치료의 두 가지 핵심

치료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기관지 염증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조절제’입니다. 주로 흡입 스테로이드제가 사용되며, 증상이 없더라도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스테로이드에 대해 우려하지만, 흡입형 제제는 폐에 직접 작용하여 전신 부작용이 매우 적고 장기간 사용에도 안전성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급성 증상을 빠르게 완화하는 ‘완화제’입니다. 기도가 갑자기 좁아져 숨이 찰 때 즉각적으로 기도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완화제 사용이 잦아진다면 질환 조절이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이므로 반드시 치료 계획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소아비만, 성장과 대사 건강을 위협하는 신호

소아비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현상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아이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학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소아비만은 단순한 체중 증가가 아니라, 성장과 대사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단순히 살이 찐 것일 뿐일까요?

비만 아동에서는 이미 다양한 대사 이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지방간, 이상지질혈증, 고혈압과 같은 성인 질환의 전 단계가 어린 나이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뚜렷한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더라도 체내에서는 대사적 위험이 축적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키가 크면 괜찮은 걸까요?

성장 측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아비만 아동은 또래보다 키가 큰 경우가 많아 보호자들이 안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장의 가속 현상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비만은 사춘기를 앞당기고 성장판의 조기 폐쇄를 유도할 수 있어 최종 성인 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아에서는 조기 사춘기와의 연관성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관리해야 할까요?

소아비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되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당뇨병과 심혈관질환 위험 증가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행히 성장기에는 체중을 급격히 줄이지 않더라도, 체중 증가 속도를 조절하면서 키 성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체질량지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호를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또래에 비해 빠른 체중 증가, 복부비만, 당뇨병나 고혈압 등의 가족력, 또래보다 이른 사춘기, 목이나 겨드랑이의 피부 착색 등은 인슐린 저항성을 시사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징후가 보일 경우 전문적인 평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치료는 언제 고려할까요?

최근에는 비만 치료에 있어 약물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와 삭센다(리라글루타이드)와 같은 GLP-1 유사체가 성인 뿐 아니라 일부 청소년 비만에서 사용되며 의미 있는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약제는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기전을 통해 체중 감소를 유도합니다. 다만, 모든 소아 비만 환자에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과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 전문의의 판단하에 제한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오심, 구토 등의 위장관 부작용

이나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약물치료는 생활 습관 개선을 대체하는 방법이 아니라, 적절한 대상에서 보조적으로 활용되는 치료 옵션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치료의 핵심은 여전히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당분이 많은 음료와 가공식품의 제한, 충분한 신체활동과 수면이 기본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아이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하기보다, 가족 전체의 생활환경을 함께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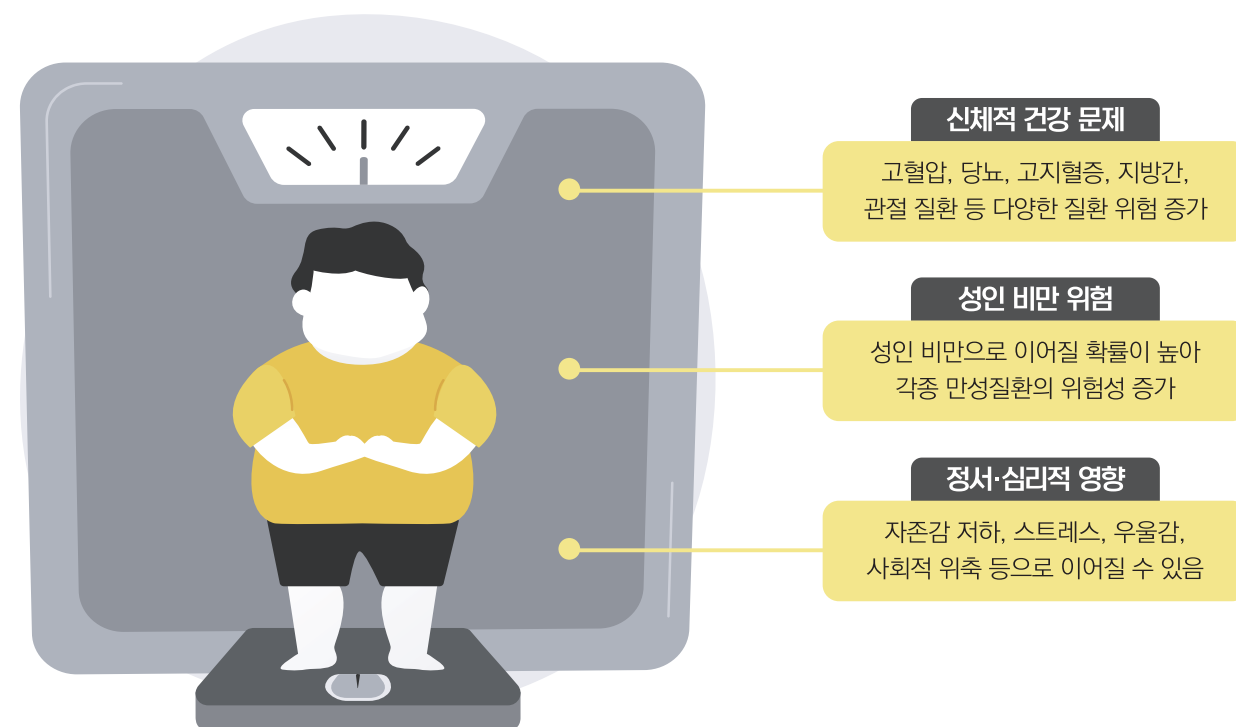
소아비만은 단순한 체형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과 대사 건강을 위협하는 조기 신호입니다. 이를 가볍게 넘기기보다,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려한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작은 변화가 아이의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유진 교수

전문진료분야
소아내분비, 성조숙증,
성장, 비만, 당뇨병,
골대사이상, 갑상선질환



아이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함께 보는
메디컬 에세이

“아이만 좋아진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 말이 잘못된 이유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환자인 아이입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 역시 찢어질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장면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상담은 아이가 힘들었던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정작 아이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답하고, 부모님이 대신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이가 겪은 어려움뿐 아니라, 아이 때문에 괴롭고 힘든 부모님의 마음까지 이어 집니다. 때로는 아이의 괴로움을 치료하러 오신 것인지, 부모님의 힘든 마음을 털어놓으러 오신 것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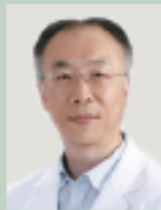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아이가 힘든 것을 치료받기 위해 오신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힘든 것을 도움받기 위해 오신 건가요?”

대부분의 부모님은 망설임 없이 “아이가 좋아지길 바라서 왔습니다”고 답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아이의 힘든 마음보다 부모님이 힘든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시나요?”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태현 교수

전문진료분야
불안, 우울, 공황장애,
PTSD, ADHD,
청소년정신의학, 조현병,
정신신체의학(만성통증,
전신통, 만성알려지반응 등)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 때문에 저도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이름으로 따로 진료를 받고, 부모님의 힘든 마음도 상담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아이만 좋아지면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조금 전까지 스스로도 힘들고 괴롭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말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부모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가 괴롭고 힘든 마음을 감추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가 정말 부모는 괜찮다고 느낄까요?

부모님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니 아이는 모를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한숨, 어두운 표정, 무거운 집안 분위기, 침묵, 잦은 다툼.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예민하게 그것을 느낍니다.

의사인 저 역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부모님의 분위기만으로도 집 안의 불안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편안하게 쉬고 마음 놓을 수 있는 아이는 많지 않습니다.

동행한 부모님들 역시 어린 시절 부모님의 눈치를 보았던 경험이 있기에, 결국 모두 인정하십니다. 부모가 힘든 것을 숨긴다고 해서, 아이가 모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아이를 돕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더라도, 부모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이 역시 안정되고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지쳐 있고 불안하면, 아이는 그 안에서 편안하게 설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부모님들은 자주 말씀하십니다.

“학교 Wee센터나 상담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는 데요?”

“가정 형편이나 부모 불화 같은 환경 문제는 어쩔 수 없는데요?”

저는 다시 질문드립니다.

“상담 선생님이 아이의 앞으로의 삶까지 계속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요?”

“가정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의 힘든 상태를 그대로 포기한 채 살아가실 건가요?”

보호자(부모)는 문제 발생 초기에 아이를 챙기느라 모든 에너지를 한꺼번에 쏟아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게 우왕좌왕하며 지쳐버리면, 이후 필요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조율하며, 아이에게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는 일이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부모님의 마음의 안정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합니다.

둘째, 번아웃이 오지 않도록 자신의 에너지와 여유를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치료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야 합니다.

넷째, 조금해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아이만 좋아진다면 저는 괜찮습니다”라는 말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때로는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드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안정이 곧 아이의 안정입니다. 🌸

카페인 음료 청소년에게 괜찮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고카페인 음료 섭취가 늘어나면서 국가마다 대책을 마련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카페인 음료는 100 mL당 카페인 15 mg 이상을 포함한 음료를 의미합니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고카페인 음료 주 3회 이상 섭취율은 2015년 3.3%에서 2017년 8.0%, 2019년에는 12.2%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20년 조사에서는 청소년 중 약 30%가 하루 3병 이상의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체중 1 kg당 2.5 mg으로, 체중 60 kg을 기준으로 할 때 150 mg입니다. 그러나 시중의 고카페인 음료는 한 캔(250~355 mL)당 60~100 mg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어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인을 각성, 집중력 향상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개인에 따라 불면증, 신경과민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카페인 분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부작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카페인이 뇌를 각성시켜 불면증, 신경과민, 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카페인 섭취가 청소년의 자살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주로 탄산음료, 초콜릿, 차 등을 통해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지만, 청소년기에는 고카페인 음료인 탄산음료, 커피, 에너지 드링크를 통해 섭취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카페인에 일정량 이상 섭취하면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중독 가능성이 높아지는 약물이기때, 특히 어린 시절에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카페인 음료 외에도 체중 조절 건강식품, 피로회복제 등에 카페인과 카페인 효과를 촉진하는 물질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인은 성인이 된 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가능하면 가공식품을 멀리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입니다. 꼭 섭취해야 할 경우, 식품의 성분과 하루 권장 섭취량을 확인해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

체중 1 kg당 2.5 mg

체중 40kg
100mg

체중 50kg
125mg

체중 60kg
150mg

고카페인
과다섭취 시
부작용

불면증

두근
거림

신경
과민

위장
질환

혈압
상승

부정맥

주요 음료별
카페인 함량



아메리카노

1회 제공량(ml)
354~591

카페인 함량(mg)
150~237



커피 우유

1회 제공량(ml)
200~500

카페인 함량(mg)
43~237



에너지 드링크

1회 제공량(ml)
250~500

카페인 함량(mg)
63~200



탄산 음료

1회 제공량(ml)
355

카페인 함량(mg)
35~54

Q&A

Q 하루 중 고카페인 음료를 2~3잔 마시는데 건강에 이상이 없을까요?

A 체중이 60 Kg 이상이고 카페인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즉각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드링크처럼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할 경우, 카페인 과다 증상으로 떨림, 두근거림, 메스꺼움, 어지러움 등의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다음 날 아침에 다시 고카페인 음료를 찾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결국 카페인에 의한 만성 피로 증상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커피와 비교하여 카페인 음료의 카페인 함량이 더 많은 걸까요?

A 커피와 카페인 음료의 종류에 따라 그 함량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에너지 드링크는 커피보다 더 높은 카페인 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카페인 함량이 커피보다 낮은 음료라도 사람에 따라 청량음료나 에너지 드링크를 더 많이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하루 총 카페인 섭취량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료 제조 회사들이 소비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카페인 함량을 높이는 경향이 있어 과다 섭취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Q 집중력을 높이고 잠이 오지 않게 하는 데 실제 효과가 있을까요?

A 카페인에 소량을 섭취해도 즉각적으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섭취가 이어지면 점차 피로가 누적되고, 수면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

“아이가 밥을 안 먹어요”

소아 식욕부진, 단순 편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 번쯤 ‘밥을 너무 안 먹어요’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성장기 소아에서 식욕 저하는 단순한 편식이나 일시적인 문제로 여겨지기 쉽지만, 지속될 경우 성장과 면역, 정서 발달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식사량 감소뿐 아니라 음식에 대한 무관심, 먹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행동 등이 동반되면 소아 식욕부진으로 평가합니다.

胃氣虛證
胃陰虛證

虛證

虛實挾雜證

食積證
肝脾不和證

소아 식욕부진은 단순히 ‘밥을 안 먹는 상태’로만 판단하지 않고, 아이의 전반적인 상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쉽게 피로해하고 감기에 잘 걸리며 땀이 많은 경우, 또는 과식 시 복부 팽만이나 트림, 구역감이 있는 경우, 활동량이 과다하고 수면이 부족한 경우 등 다양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아이의 체질과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뉘며, 치료 접근도 달라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소아 식욕부진을 크게 허증(虛證)과 허실협잡증(虛實挾雜證)으로 구분합니다. 허증은 위기허증(胃氣虛證)과 위음허증(胃陰虛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기허증은 힘이 없고, 대변이 풀어지고, 땀이 많고, 소화가 잘 안되는 경우 진단 합니다. 위음허증은 식사량은 적으나 물을 많이 마시고, 피부 윤기 부족, 수면량이 적고, 수족 열감이 있을 때 진단 할 수 있습니다. 허실협잡증의 경우 과식 시 복부 팽만, 트림과 구역질, 성장 양호, 대변 변비 혹은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할 경우 식적증(食積證)으로 진단하고, 조급한 성질, 활동량 과다, 불안 또는 우울, 야제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간비불화증(肝脾不和證)으로 진단 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식욕부진’이라도 원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일한 방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아이의 상태에 맞는 맞춤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아 식욕부진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감별진단도 고려해야 합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감염성 질환 등 다른 원인이 식욕 저하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욕부진이 지속되는 경우 단순히 ‘입이 짧은 아이’로 넘기기보다 성장곡선, 영양 상태, 행동 특성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는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상태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한약 치료는 위기허증, 위음허증, 식적증, 간비불화증 등 변증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며, 침 치료나 뜸 치료, 침부요법, 혈위 지압, 소아추나 등 비약물적 치료도 함께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는 단독으로 시행되기도 하지만, 필요시 통상적인 의과 치료인 돔페리돈(domperidone), 소화효소, 프로바이오틱스 등과 병행하여 적용하기도 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얼마나 먹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식사 행동 변화, 활동량, 수면 상태, 감염 빈도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함께 평가하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치료 후에는 식욕 평가 도구(K-CEBQ)를 통해 변화를 확인하며,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관리도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간식은 식사 사이에 제한적으로 제공하며, 강요하거나 혼내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활동량이 부족한 아이는 신체 활동을 늘리고, 수면 리듬이 불규칙한 경우 생활 패턴을 조절하는 것이 식욕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식사 행동을 문제로만 보지 말고 전반적인 건강 신호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아 식욕부진은 단순히 ‘먹지 않는 습관’이 아니라 성장과 면역, 정서 상태까지 반영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식욕 저하가 반복되거나 체중 증가가 정체되는 경우, 혹은 아이의 전반적인 활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한방부인소아과

김은진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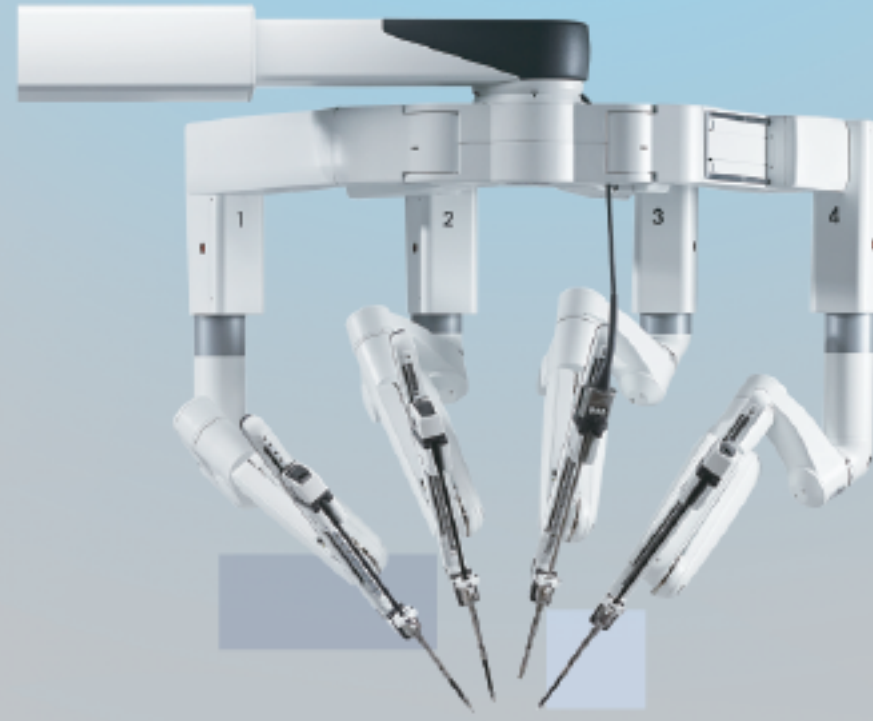
전문진료분야 ▶
한방소아청소년과 질환,
한방여성의학과 질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다

첨단 장비와 인술의 융합을 통한 수술의 진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최첨단 시설과 장비, 의료 시스템 구축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고난도 질환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다빈치 로봇수술과 ZAP-X 방사선수술을 통해 축적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송담 로봇수술센터

다빈치 로봇수술 1,000례 달성, 환자 중심 최소 침습 수술 확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다빈치 로봇수술 1,000례를 달성 (2026. 2. 23. 기준)하며 정밀 의료 분야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 첨단 로봇수술 시스템과 숙련된 의료진, 체계적인 환자 관리 시스템이 결합되어 이뤄낸 결과로 병원의 로봇수술 역량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환자 만족으로 이어지는 로봇수술의 성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첨단 로봇수술 시스템인 다빈치 Xi를 도입해 2021년 개소했다. 이후 비뇨의학과를 시작으로 산부인과,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로봇수술을 시행하며 수술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축적된 수술 노하우가 더해지며 로봇수술의 안정성과 정밀도를 높여 왔으며,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수술은 정교하게, 환자는 안전하게, 회복은 빠르게
다빈치 로봇수술은 기존 개복수술과 달리 환자의 피부에 작은 구멍을 통해 로봇 팔을 삽입해 진행하는 최소 침습 수술이다. 집도위가 콘솔에서 조작하면 의사의 손과 손목, 손가락의 움직임이 그대로 로봇 팔에 전달되어 매우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 특히 10배 이상 확대된 3차원 영상으로 수술 부위를 확인할 수 있어 개복수술보다 훨씬 정밀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으며, 4개의 로봇 팔이 최대 540도까지 회전해 인체 깊은 부위까지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장점은 피부 절개를 최소화하고 통증과 출혈을 줄이며, 회복 기간을 단축시켜 환자의 일상 복귀를 돕는다. 또한 고난도 암수술에서도 미세한 조직을 정교하게 절제하고 봉합할 수 있어 정밀 수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첨단 기술에 따뜻한 인술을 더하다

윤상호 로봇수술센터장은 “로봇수술 1,000례 달성은 각 진료과 의료진의 유기적인 협진과 환자들의 깊은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실”이라며, “우리의 지향점은 단순한 수술 기록을 넘어, 단 한 명의 환자라도 더 빠르게 일상의 행복을 되찾도록 돕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축적된 숙련된 경험에 따뜻한 인술을 더해, 환자가 믿고 몸을 맡길 수 있는 최상의 의료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앞으로도 첨단 의료와 환자 중심의 의료 가치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기술과 마음이 공존하는 따뜻한 의료 현장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축적된 임상 경험이 완성한 생명기술

(재)법보선원, 자비의 원력으로 세우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로봇수술센터의 탄생 이면에는 (재)법보선원(이사장 송담 큰스님)의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라는 숭고한 정신이 깃들어 있다. 약 40억 원에 달하는 소중한 정재(淨財)를 기부함으로써 문을 연 로봇수술센터는 그 깊은 뜻을 기리고자 ‘송담로봇수술센터’로 명명되었다. 이는 의료시설의 건립을 넘어, 생명을 살리고 자비 의료를 실천하라는 송담 큰스님의 원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사부대중의 정성이 하나로 모여 이룬 공덕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이러한 대자대비(大慈大悲)의 마음을 이어받아, 첨단 로봇 수술이라는 현대 의학의 정수를 환자 치료와 생명 존중의 가치로 승화시키고 있다.



질환별 적용 분야

- 산부인과 :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자궁근증, 자궁선근증, 난소종양, 자궁내막증, 자궁질탈출증
- 외과 : 위장관종양, 위, 식도, 십이지장질환, 위암, 간, 담도, 췌장질환, 갑상선, 부갑상선질환, 경부질환, 대장항문질환, 유방외과
- 비뇨의학과 : 신장암, 방광암, 전립선암, 신우요관협착, 요로결석
- 흉부외과 : 폐, 식도 질환
- 이비인후과 : 갑상선 종양, 두경부 종양, 타액선(침샘) 종양, 구인두 종양

첨단 장비와 축적된 임상 경험이 만들어낸 결과는 더욱 정교해졌고, 환자에게 돌아가는 회복의 시간은 한층 더 빨라졌다.

ZAP-X 아시아 방사선수술센터 일산

비침습 뇌질환 치료의 새로운 지평, ZAP-X 방사선수술 300례 달성

동국대학교일산병원 ‘ZAP-X 아시아 방사선수술센터 일산’이 방사선수술 300례를 달성(2026. 3. 3. 기준)하며 비침습 뇌질환 치료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4년 장비 도입 이후 약 21개월 만에 이루어진 결과로, 최첨단 방사선수술 기술을 기반으로 환자 중심의 치료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뇌·두경부 질환 치료에 특화된 최첨단 방사선수술
비침습적 암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도입한 ZAP-X 방사선수술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ZAP-X는 뇌 및 두경부 질환 치료에 특화된 방사선수술 장비로, 병변에만 고선량 방사선을 정밀하게 전달하면서 주변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세계 최초로 자이로스코프(Gyroscope) 기술을

적용해 약 0.5mm 이내의 오차 범위로 방사선을 집중 조사할 수 있어 치료의 정확도를 크게 높였다. 또한 별도의 방사선 차폐 벙커가 필요 없고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의료장비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절개·마취 없는 비침습 치료, 환자 부담 최소화
ZAP-X 방사선수술은 절개나 전신마취가 필요 없는 비침습 치료로 환자는 CT나 MRI 검사를 받듯 장비에 누운 상태에서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치료를 받는다. 치료 후 별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 없어 당일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며, 수술에 따른 감염이나 출혈 등의 위험도 없다. 이러한 장점으로 뇌종양, 뇌혈관 질환, 삼차신경통, 두경부 종양, 안구 종양 등 뇌 및 두경부에 발생한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고 있으며 마취가 필요없어 수술이 불가능했던 심각한 기저질환 환자에게도 효과적인 치료로 평가받고 있다. 질환별로는 뇌수막종이 가장 많았으며 뇌 전이암, 청신경초종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는 60대와 70대 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80대 이상의 고령 환자도 55명에 달했다. 이는 전신마취가 필요 없는 비침습 치료의 장점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글로벌 방사선수술 거점센터로 도약

현재까지 시행된 300례의 방사선수술에서 재발이나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는 정상 조직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면서 병변에만 정밀하게 방사선을 조사하는 ZAP-X 기술의 안전성을 임상적으로 확인한 성과로 평가된다. 양승엽 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전 세계 ZAP-X 운영 기관 중 단위 기간당 진료량에서 세계 2위를 기록할 만큼 빠르게 임상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축적된 경험과 첨단 인프라를 기반으로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방사선수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

질환별 적용 분야

- 신경외과 : 뇌종양, 뇌혈관 질환, 삼차신경통 등 기능성 뇌질환
- 이비인후과 : 두경부 종양
- 안과 : 안구 및 안와 종양
- 정신건강의학과 : 강박장애 등 일부 정신 질환



ZAP-X 첫 치료 환자 | 2024. 5. 27.

질병을 넘어 사람을 보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한방내과

현대 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자들은 검사상으로는 정상이지만 여전히 통증을 느끼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기도 한다. 단일 장기의 수치에 집중하는 대신, 인체 내부 장부의 기능과 병리 변화를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치료하며 질환을 단일 장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균형의 문제로 접근하는 분야가 있다. 바로 풍부한 임상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환자 맞춤형 치료를 실현하고 있는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한방내과이다.

증상 조절을 넘어선 전인적 기능 회복

한방내과는 단순히 아픈 부위 하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질환이라도 환자의 체력, 성향, 질환의 기간, 생활 환경 등 전신 상태를 고려해 치료 전략을 설정한다. 단순히 증상 완화에 그치지 않고, 질병의 근본 기전을 이해하고, 환자의 삶의 맥락까지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재발을 줄이고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임상경험을 연구로 확장하고 다시 진료에 반영하는 ‘근거 기반 진료’ 역시 한방내과의 중요한 가치이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의 한방내과는 중풍, 소화기, 암 등 질환군별로 특화된 전문 진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한약을 중심으로 장부 기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필요시 양·한방 협진을 통해 검사 및 재활 치료와의 연계성을 높인다. 기존 의료 시스템에서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증상 이나 만성화된 질환에 대해 의미 있는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환자의 회복을 돕는 전인적 치료

한방내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는 ‘환자의 회복을 돕는 전인적 치료’다. 이는 단순히 당장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질병의 근본 기전을 이해하고, 환자의 삶의 맥락까지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재발을 방지 하고 환자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을 의미한다.

서양의학이 구조적 이상과 급성 치료에 강점이 있다면, 한방 내과는 어그러진 균형을 조화롭게 맞추고 기능 저하 상태를 회복시키는 데 강점이 있다. 단일 증상뿐 아니라 수면, 식욕, 피로, 면역 상태까지 전반적 컨디션이 함께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한약뿐 아니라 침, 뜸, 부항, 약침 등을 환자 상태에 맞게 병행하며, 특히 약물 부작용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 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

전문성과 유연함을 겸비한 최강의 의료진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한방내과는 4명의 교수진을 필두로 전공의와 연구원, 간호 인력이 한 팀이 되어 환자를 맞이한다. 각 분야의 권위자인 교수의 전문성은 한방내과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다. 이들은 정기 컨퍼런스와 전공의 공동 교육, 연구-임상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진료의 완성도를 유지한다. 특히 교수와 전공의 간의 유연한 소통 구조는 환자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한다. 매년 1~2회 인근 농장에서 열리는 바비큐 파티는 졸업생들까지 참여 하는 전통으로, 끈끈한 팀워크가 곧 환자 서비스의 질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든다.

회복의 전환점이 되는 곳

한방내과에는 다양한 고민을 안은 환자들이 발걸음을 한다. 중풍센터를 찾는 신경계 환자, 기능성 위장장애 클리닉을 찾는 소화기 환자, 그리고 항암 치료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한의암 클리닉을 찾는 이들까지 폭이 넓다. 또한 만성 피로와 노인성 허약을 관리하는 ‘보양센터’, 한약의 안전성을 과학 적으로 평가하는 ‘한약(생약)제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방내과 의료진은 입을 모아 말한다. 환자들이 한방내과를 통해 ‘왜 아픈지 비로소 이해했고, 실제로 몸이 좋아졌으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은 곳’으로 기억해주길 바란다.

인체의 무너진 균형이 다시금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치유는 시작된다. 한방내과는 오늘도 환자들의 삶 속에서 그 ‘회복의 전환점’을 만들어가고 있다. 🌸

교수	전문진료분야
정지천	노인중풍, 노인허약, 당뇨병, 전립선질환, 성기능장애, 기침, 천식, 수족냉증, 만성피로, 신장질환
임성우	일반 소화기질환, 소화기종양, 구취 입마름증, 난치성 역류성 식도염, 만성 대장염(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기능성 위장병
최동준	중풍전조증, 중풍후유증, 파킨슨병, 이상운동질환, 가슴통증, 협심증, 가슴두근거림, 동맥경화
김미경	소화기질환,간계질환, 한양방협진 암클리닉(암관련 증상 및 항암 후유증, 암피로, 암 병발 중풍), 혈액종양(빈혈/어혈), 해독(금주 등 각종 중독, 약물이상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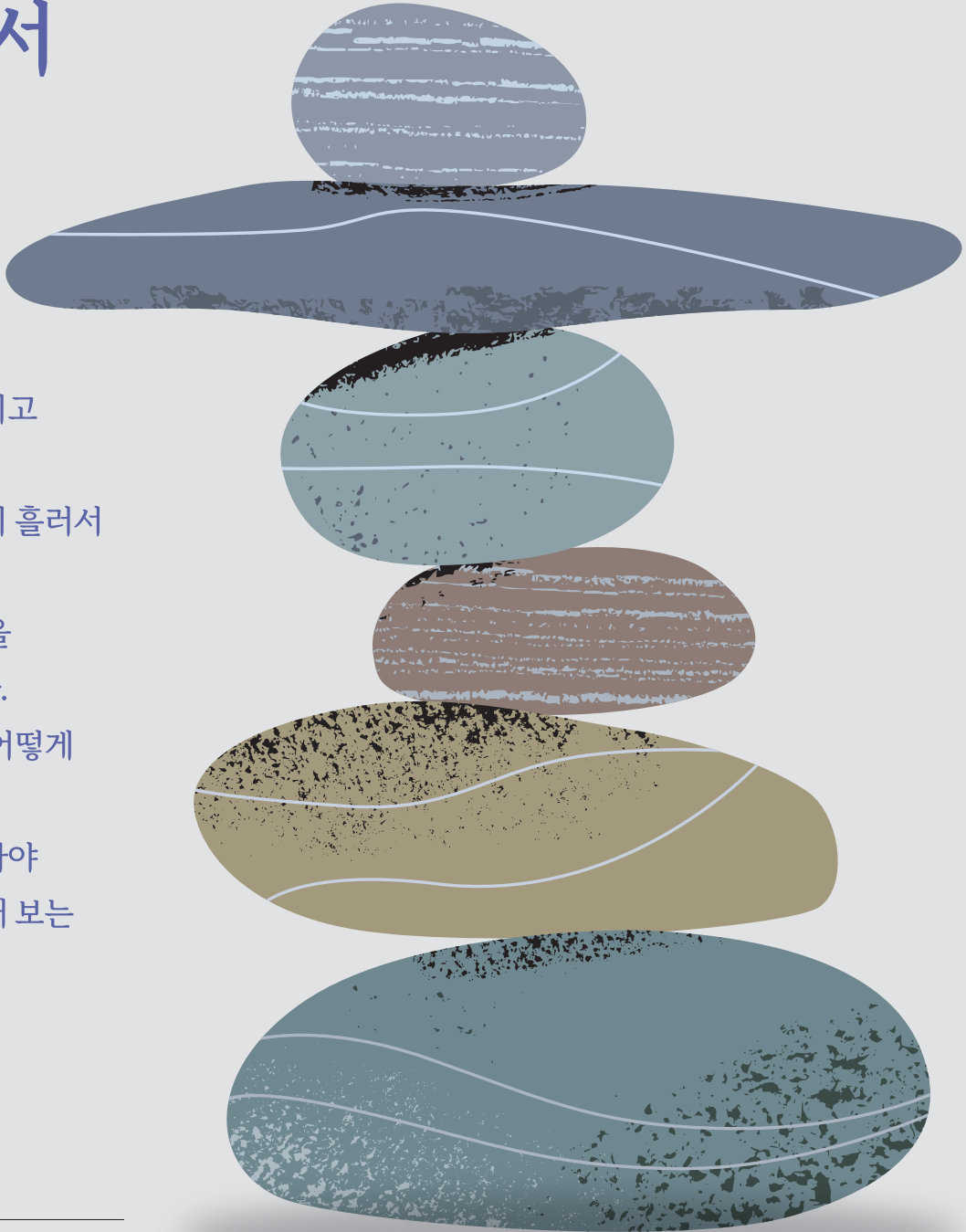
염 화 미 소
拈 華 微 笑
무여스님

한 해의 가운데에서

연초에 새롭게 원을 다지고
새출발을 했는데,
뭔가 소득도 없이 시간이 흘러서
벌써 6월이 되었다.
일 년의 반... 일 년의 삶을
중간 점검하는 시간이다.
한 해의 중간을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며,
남은 반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조용히 사색해 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글 무여스님

現 고양시 보리선원 주지 / 유튜브 '무여스님 TV' 운영 /
달마사 · 화계사 · 연운사 불교대학 강사 / 저서 <우리 함께 떠나요>



6월에는 보리 베기와 모내기를 하는 절기가 있기도
하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가 자리 잡고 있다.
본격적으로 기온이 올라가서 몹시 더워질 것을 예고한다.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이 가장 길어서 양의 꼭짓점을
찍는 날, 하지에 최고점을 찍음과 동시에 반대로
잠재되어 있는 반대 기온이 싹트기 시작한다.
정상에 오르면 반드시 내려가게 마련이듯이, 올라가면
내려가게 되어있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게 되어있다.
한순간도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고정불변한 것은 없다는
무상의 이치를 보여준다.
작은 결실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결실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서 재출발하는
정진의 힘이 필요하다. 나태하고 게을러진 마음에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듯이,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의
정진력이 필요할 때이다.

어느 수행자의 이야기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어느 수행자가 산속에서 도를 닦는 데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다. 마음을 가다듬고 앉기만 하면
온갖 번뇌 망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왔다. 멀리서 가만히 지켜보니,
나무꾼은 톱으로 나무 밑둥치를 쓱쓱 잘라서 나무가
‘쿵’ 하고 쓰러지자 밧줄로 몸통을 묶어 끌고 가려 했다.
그런데 나뭇가지가 이리저리 걸려 풀리지 않자,
망설임 없이 도끼로 가지들을 톱 톱 다 잘라버렸다.
둥치만 남은 나무는 나무꾼이 이끄는 대로 잘 끌려갔다.
이를 본 수행자는 무릎을 치며 큰 깨달음을 얻었다.

위 이야기를 통해서 번뇌의 가치를 끊어야 일심으로
정진할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교훈을 얻은 이야기이다.

“

번뇌의 가치를 덜어내고
조급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은 고요해지고
바른 길로 나아간다.
때를 알고 꾸준히 정진하는 삶이
참된 결실로 이어진다.

”

두려워할 것은 빨리 되지 않는다는 조급한 마음,
그리고 끝없는 애착과 욕심이다. 욕심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서 지금 이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애착과 번뇌로 치달아서 끝없이 들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마음 발에 잡초가 너무 무성하면 잡초를 뽑아내고
제거해야 한다. 마음 발의 잡초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마음의 번뇌, 애착, 욕심, 번뇌, 시기, 질투이다.
이런 것들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방해가 되어
좋은 결실을 얻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 조급해지면 일이
무르익기 전에 그르치게 된다. 소중한 꿈일수록 꾸준히
거름을 주고 가꾸며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급하다고 아무 때나 씨를 뿌리고
모를 심으면 결실을 기대할 수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안다. 때를 모르고, 제철을 모르면
농사를 망치듯이,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시절 인연을 기다리며
꾸준히 노력하고 정진한다면 언젠가는 원하는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며 한쪽에 치우치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삶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후회 없이 살아가기를 다짐해 본다. 🌸

배곡하게 들어 찬 마음 서랍을 비우는 절집

템플 스케치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사

글 · 그림 배 종 훈

낮에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밤과 주말에는 여행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느긋한 외로움을 즐기고 있다.

〈출간도서〉 유렵을 그리다, 차마 끝 풍경이 내게 물었다, 마음을 두고 와도 괜찮아, 행복한 명상키툼 외 다수.



#1

절집에 올 때 마음이 늘 그렇다.
섬 없이 달려온 시간을 돌아보고,
비움 없이 채워서 텅이 없는 좁은 마음을
정리하겠노라 해놓고선 주말 고속도로
상황과 더운 날씨에 금세 지치고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
조급해졌으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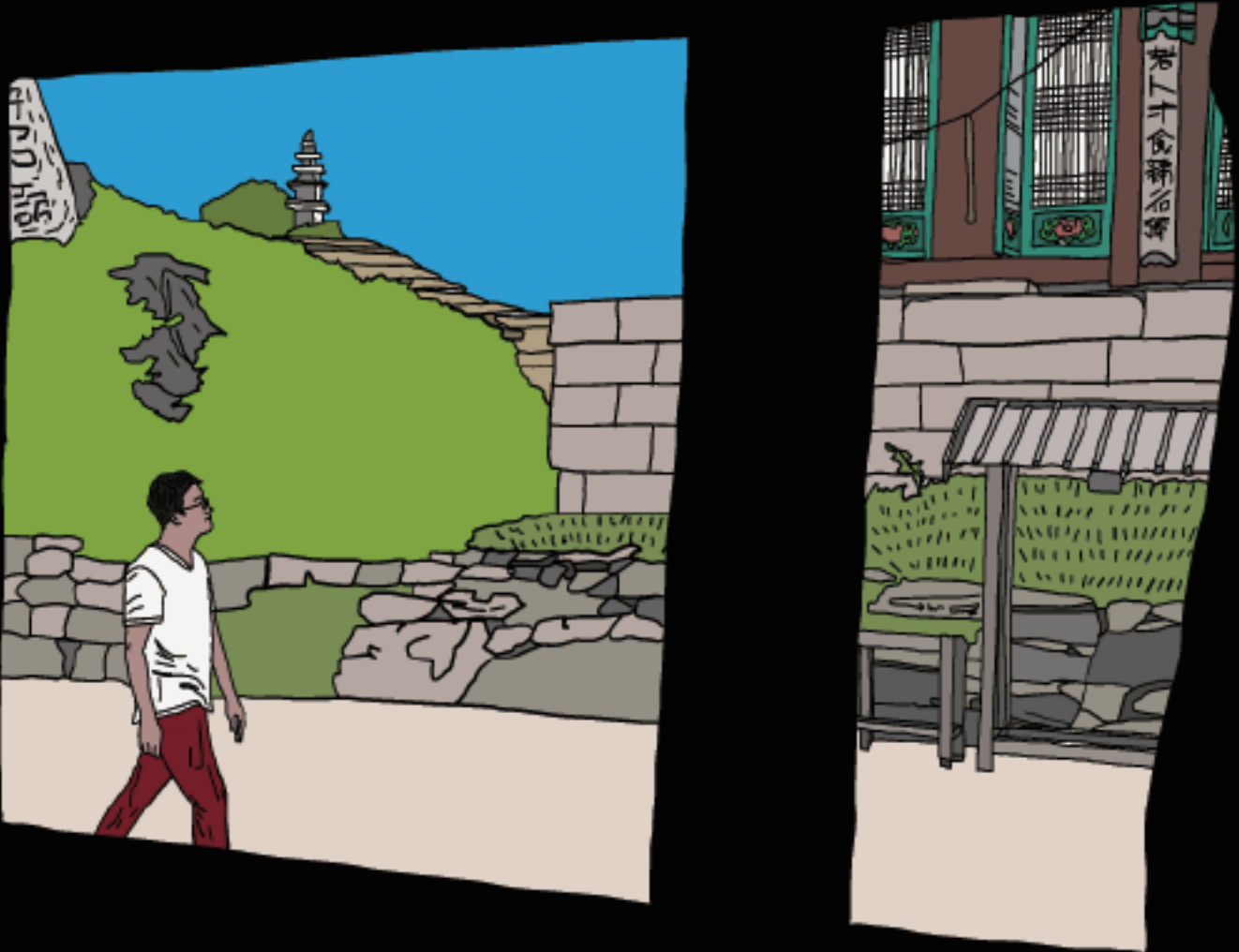
그동안의 내 마음은 정리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둔 가장 마지막 칸
서랍이었다. 버리기엔 아까워 언젠가 다시
쓰겠지하고 쌓아둔 마음이 10년이 넘게
먼지를 덮고 앉아 있는 곳.
이젠 그 서랍도 용량 한계에 도달했다.
살짝만 건드려도 아무렇게나 넣어둔
마음들이 당장 쏟아져 나올 것 같았다.
멀리 안양루가 보이는 자리에서
나 자신에게 다시 말한다.
나는 지금 이곳에 있고, 전부는 아니더라도
마음 속 서랍이 조금은 가벼워지도록
정리하고 가겠노라고.



#2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삶과 죽음은 참 가까운 곳에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보다 주변에는 생을 마치고 떠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15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남동생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하게 막힌다.
가족을 예기치 못한 일로 하늘로 보내는 것은 손이 닿지 않는 등허리 어딘가에 칼이 꽂히는 일이다.
그것은 영원히 아프고 피가 흐르는 상처가 된다. 매일매일 밤이 되면 가슴이 답답해 쉽게
잠들지 못했고, 길을 걸거나 운전을 하다가 눈물이 복받쳐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 들어가거나
차를 세워야 하는 날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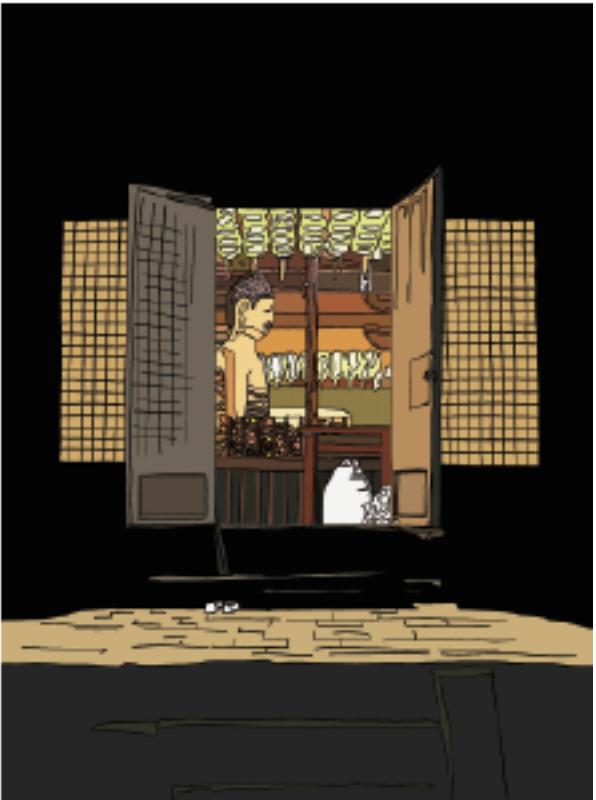
법당에 들어서서는 스님의 뒷모습에 왜 울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따라 들어가
한구석에서 삼배를 올리고 한참을 엎드려 훌쩍거렸다.



#3

저녁 예불을 마치고 고요하던 법당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불빛 때문에 날아든
커다란 나방 한 마리 때문이었다.
부모와 함께 예불에 참석한 아이 둘이 놀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나방은 아이들과
장난을 하려는지 아이들이 숨는 곳으로만
쫓아 날아다녔다. 아이들을 나무라던
아버지가 나방을 잡으려 했더니
죽이지 말고 수건으로 툭툭 쳐 법당 밖으로
내보내라고 또 아이들이 난리다.
여긴 절이라고, 그럼 안 된다고 말이다.
어디서 그런 이야길 들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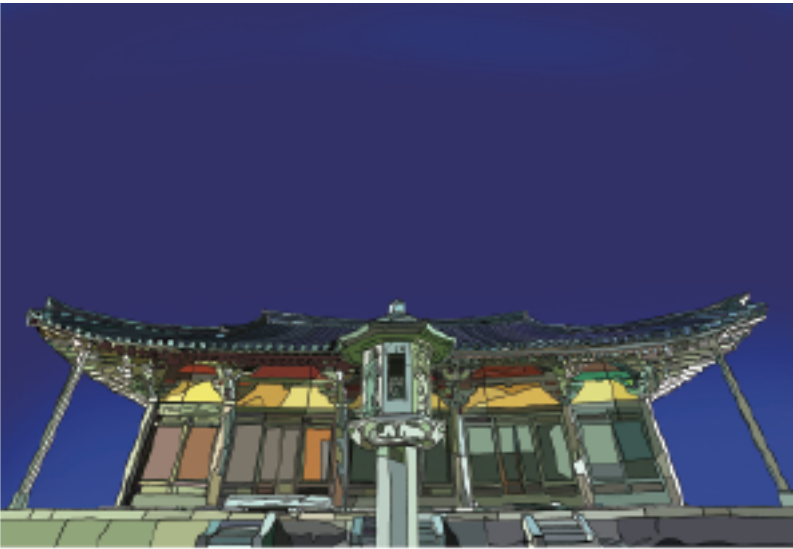
아이들은 스스로 자라고 있다.
성장이 보이지 않지만 멈추지 않는
나무처럼 말이다.



#4

부석사에서 하루를 지내고 갈 여건이 되지 않아
어둠에 든 무량수전을 사진으로 담고
내려가겠노라 허락을 받았다.
인공으로 만든 빛이 적은 산에는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는데 싶더니 금세 암흑이다.
안양루 계단을 조금 내려서 자리를 잡고
카메라를 들었다. 어둠으로 카메라 설정을
조정해도 흔들림을 어쩔 수 없었다.
구도만 잡아 몇 장을 찍고 가만히 눈으로
그 순간을 담았다.

비워보겠노라 달려온 이곳에서 가벼워진 것은
없지만, 보탠 것도 없다는 것이 위로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본래의 마음을 깨우쳐 무량수(無量壽)가 되면
좁아터진 마음 서랍 걱정이 없을 텐데...’ 하는
생각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



채무자의 숨겨놓은 가등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숨 막히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이다. 내리쬐는 태양 아래 시원한 얼음물 한 잔이 간절하듯, 길고 긴 법정 싸움을 마친 채권자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아마도 빌려준 돈을 실제로 손에 쥐는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승소 판결문이라는 시원한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목이 타는 경우가 있다. 바로 채무자가 자기 재산에 교묘하게 ‘가등기’를 설정해 숨겨놓은 상황이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모든 고민이 끝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판결문이 오히려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가 자기 재산에 교묘하게 ‘가등기’를 설정해 숨겨놓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김도기(가명) 씨의 사례가 이와 같다. 그는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으나, 채무자 고우혁(가명)의 아파트에는 이미 친척 권성희(가명) 명의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가등기가 경매의 걸림돌이 되는 이유

가등기는 장래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미리 등기부에 기재해 두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면 경매 절차에서 매우 치명적이다. 누군가 낙찰을 받더라도 나중에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해버리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 위험성 때문에 가등기가 걸린 매물은 반복해서 유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설정한 가짜 가등기를 걷어낼 수 있는 법적 전략은 분명히 존재한다.

① 10년의 제척기간을 확인하라

가등기에는 일종의 유효기간이 있다.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예약 성립일로 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는 일반적인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되지 않는 강력한 시간적 제한이다. 따라서 등기부상 가등기가 경료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본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가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② 친인척간의 허위 거래 여부를 파고들라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지인이나 친척과 짜고 가짜 가등기를 해두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정허위 표시’라고 한다. 물론 법정에서는 채권자가 가짜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명령 등을 활용해 실제 매매 대금이 오갔는지, 이자 지급 내역은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진다면 허위성을 밝혀낼 수 있다. 친인척간의 거래라는 점은 그 자체로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된다.

“

판결에서 이겼다고 끝이 아니다.
채무자가 숨겨둔 가등기는
또 다른 장벽이 된다.
그러나 제척기간, 허위 거래 입증,
채권자대위권 등 법적 수단을
활용하면 길은 열린다.

”

③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직접 말소를 청구하라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되찾으려는 의지가 없다면 채권자가 직접 나설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이 빚보다 적은 ‘무자력’ 상태일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진 가등기 말소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해결의 실마리다

사실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을 상대로 한 집행은 전문가에게도 까다로운 영역이다. 하지만 가등기의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고 법적 허점을 찾아낸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길도 열리기 마련이다.

실제로 가짜 가등기를 설정한 자들은 소송이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 최근 필자의 사례에서도 소 제기 후 판결이 나기 전,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제안하여 채권 전부를 회수한 바 있다.

법이라는 정교한 도구를 포기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길은 반드시 나타난다. 🌟

글 주상은

現 원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및 건설 전문 변호사로서, 수용재결, 손해배상 등 다양한 민사사건을 다룬다.



마음에 꽃을 심는
원영 스님 필사집

마 음 글 발

최근 몇 년 사이 필사는 독서 트렌드의 중심에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흔히 ‘남의 문장을 베껴 쓰는 일’ 정도로 여겨졌던 필사는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자신만의 속도를 되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제일 먼저 주목받은 모양입니다.

기본적으로 필사란 느린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떠한 글을 읽고 그 글의 의미가 마음에 들었다면 그다음에야 다른 종이에 해당 문장을 옮겨 적고는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같은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게 되죠. 지면 위로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쓰는 움직임은 마치 각자의 마음속에 한 자씩 새기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필사가 호응을 받는 건 어쩌면 이 일련의 행위를 시작하고 마치는 동안 온전히 글과 자기 자신만 남은 듯한 감각을 사랑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다양한 분야에서 필사용 도서를 출간하는 편입니다. 고전 작품을 필사하며 옛글에서 지혜를 길어 올리거나, 여러 언어의 문장을 따라 쓰며 언어 능력을 키워 보거나, 때로는 지금보다 더 나은 어휘를 쓰고자 명문장만 모아둔 필사용 도서를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삶의 국면 앞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전, 잠시 스스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필사를 할 수도 있겠지요.

『마음 글발』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언제나 치열하게 부딪혀 가며 하루를 보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맞이하기 위해, 또 그보다 더 좋은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에 피로가 쌓여 가는 것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켜켜이 쌓이는 오래된 마음의 피로감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사람 간의 관계가 쉽게 마모되고, 그로 인해 우리 자신의 인생은 금세 소모되어 갑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운동을 매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이와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 오늘과 내일 사이에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 글발』은 100일을 ‘비움-회복-채움-실천-리셋’이라는 다섯 단계로 나누어 우리가 마음을 재정비하는 태도를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붙잡아 두었던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는지, 상처 나고 금 간 내면을 어떻게 돌보는지, 언젠가 다시 마음을 정리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을 때 스스로 다잡는 방법은 무엇인지 몸에 익히게 됩니다.

마음 글발
저자-원영

『마음 글발』의 저자 원영 스님은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등으로 불교를 쉽게 전하여 ‘불교 일타강사’로 유명하지만, 그 말의 힘은 수행자로서 일상을 살아오며 오래 글을 쓴 ‘에세이스트’로서의 시간에서 비롯됩니다. 원영 스님의 글은 위로를 앞세우지도, 희망을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서른 해를 지나오며 날카롭고 섬세하게 제련된 책 속 문장들은 이유 모르게 지친 사람, 인생의 다음 장을 앞둔 사람, 그저 오늘이 무사히 끝나길 바라는 이들 모두의 마음 어딘가에 흔적을 남깁니다. 백 가지 문장을 손수 써 내려가는 동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굴곡의 흔적이 남게 될까요. 원영 스님의 마음 글발에서 느긋하게 노닐어 보길 바랍니다.

“스님들이 겨우내 번뇌를 태우듯
그 무렵 대보름엔 마을에서도 무언가를 태웠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 번은 태워야 하는가 보다.
번뇌도, 미련도, 지나간 못난 일도
불길 속에 놓아두고 새로 시작하는 것인가 보다.”



DUMC NEWS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신경과 김동억 교수, 체내 축적 줄인 분해형 나노입자를 이용한 뇌혈전 영상 기술 개발

동국대 - 서울대 공동 연구진이 체내 축적을 줄인 분해형 CT 조영 나노입자를 개발했으며, 연구 결과는 Acs Nano (IF16.1) 최신 호에 게재됐다. 이 기술은 기존 조영제와 달리 혈전을 직접 영상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팀은 고요오드 함량 고분자와 피브린 표적 기능을 적용해 혈전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했으며, 동물 실험에서 주입 직후 혈전이 선명하게 관찰됐다. 특히 활성산소(ROS)에 반응해 분해되는 구조로 체내 잔류 위험을 낮춰 임상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연구는 혈전 질환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신경과 김동억 교수와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안철희 교수가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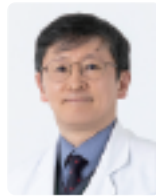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한방병원 공동연구팀, BPSD 개선 효과 임상 결과 발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김광기 교수와 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구병수 교수 연구팀이 협진 및 공동연구를 통해 우황청심원과 도네페질 병용 투여 시 알츠하이머병 행동심리증상(B-PSD)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국제학술지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에 발표했다. 경증 환자 74명을 대상으로 24주간 비교한 결과, 병용 투여군에서 BPSD 점수가 유의하게 개선됐으며 특히 과민성 감소 효과가 두드러졌다. 구병수 교수는 “과민성 감소는 보호자 부담 경감과 돌봄 환경 개선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대규모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경과
김광기 교수



한방신경정신과
구병수 교수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경기도 ‘한의학정책지원단’ 운영기관 선정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출범한 ‘한의학정책지원단’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지원단은 2024년 ‘경기도 한의약 육성조례’ 개정에 따라 설치된 조직으로, 한의약 정책 개발, 보건기관 협력, 교육·홍보, 보건 증진사업 등을 수행한다. 한방병원은 경기도형 한의재택돌봄 모델 구축과 난임치료 정책 고도화, 신규 공공사업 발굴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올해는 난임치료 지원 사업과 통합돌봄 모델 개발이 진행된다.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2017년 이후 4,000여 명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임신 성공률 21.3%를 기록했다. 한방병원은 이를 토대로 한의약 정책의 표준화와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임직원 복지 증진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임직원 복지 증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병원 임직원이 공제회의 장기저축 급여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제회 제도 안내 및 상담 지원 △문화 행사·강연 등 복지 프로그램 협력 △행사 진행을 위한 장소 제공 및 운영 협조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고양산업진흥원과 스타트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고양산업진흥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프라를 활용해 관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기업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창업 기업 대상 공간·인프라 공동 활용, 기술·투자 자문 및 네트워크 연계, 교육·멘토링·세미나·IR 등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며, 지역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26년 카자흐스탄 국제관광 박람회 및 한국 의료 상담회 참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린 2026년 카자흐스탄 국제관광 박람회에 참가해 한국 의료기술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관광공사와 경기도 지원 아래 국내 의료기관 등 약 30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병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가했다. 병원은 현장 부스를 통해 의료 상담과 홍보를 진행했으며, ZAP-X 방사선수술과 다빈치 로봇수술, 건강검진 분야가 현지 방문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어 4월 25일에는 카자흐스탄 서부 우랄스크에서 열린 한국 의료상담회에 참여해 종합검진 상담을 진행했다.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참여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5월 16일과 17일 양일간,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연등회’에 참여했다. 16일 열린 연등 행렬에는 백용해 병원장, 김동일 한방병원장, 지도법사 능지스님, 교직원 불자회 광범석 연우회장 및 교직원 등이 행렬에 동참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했다. 이어 17일에는 조계사 앞 우정국로 일대에서 펼쳐진 전통문화마당에 참여해 부스를 운영하며 의료지원, 기금 모연 및 병원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부스를 찾은 많은 불자와 스님들은 병원의 활동을 격려하며, 기금 모연에도 뜻을 함께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참여, 의료지원 및 홍보·기금모연 부스 운영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참여해 의료지원 및 홍보·기금모연 부스를 운영했다. 병원은 박람회 관람객들의 응급상황에 대비한 의료지원 활동을 펼치며 불교종립병원으로서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했다. 아울러 병원 홍보 및 ‘땅 한평의 원력’ 기금 모연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비롯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윤재웅 총장, 백용해 병원장, 지도법사 능지스님, 정형수 사무국장, 광범석 연우회장 등이 병원 부스를 방문해 격려하고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기금 모연에 동참했다.



갤러리 ‘숨’, 전미경 작가 특별전 ‘꽃, 씨, 신, 화’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갤러리 ‘숨’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기획된 전미경 작가 특별전 ‘꽃, 씨, 신, 화’가 4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됐다. 전미경 작가는 전시를 통해 “작업에 몰입하는 순간 나 자신도 수행자가 된다”며, “관람객들에게 자유와 마음의 위로가 되었길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병원 내 전시 공간인 갤러리 ‘숨’은 병원을 찾는 환우와 가족들에게 일상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 운영되었으며, 이번 특별전 역시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선사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산부인과 다빈치 로봇수술, 최단 기간 1,000례 달성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산부인과가 로봇수술 1,000례를 달성했다. 병원은 3월 31일 기준, 지난 2024년 6월 첫 로봇수술 시행 이후 22개월 만에 해당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단일 진료과 기준 최단기간 내 최다 시행 사례로 의미를 더한다. 특히 심부자궁내막증 로봇수술 분야에서는 2025년 세계 최다 수술 기록을 달성했으며, 환자 유입도 전국을 넘어 해외까지 확대되고 있다. 산부인과 김도균 교수는 자궁근종, 선근종, 심부자궁내막증 치료와 함께 자궁 기능 보존 중심 치료를 이어가고 있으며, 방광·요관·직장·골반신경 등 복합 병변에도 로봇수술을 적용하고 있다. 김도균 센터장은 “수술 프로토콜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왔다”며 “앞으로도 환자 맞춤형 치료와 첨단 의료 기술을 통해 정밀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건강강좌 개최, 지역사회 건강 증진 앞장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정형외과 이호민 교수의 ‘어깨관절의 치료와 예방’을 주제로 건강 강좌를 진행했다. 이번 강좌에서는 어깨 질환의 유형 및 현황 △진료 및 수술 과정 △수술 후 관리와 재활 등 어깨 통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적절한 치료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이호민 교수는 “어깨 질환은 초기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통증이 발생하면 전문 의를 통한 조기 진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강의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춘계성지순례 송광사 나들이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빗버들회는 전남 순천시 조계산 자락에 위치한 천년 고찰 송광사에서 불기 2570년 춘계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이번 순례에는 지도법사 혜능스님을 비롯해 교직원과 가족 등 약 200명이 참여해 봄기운 속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순례단은 국사전, 약사전, 영상전 등을 둘러보고, 목조삼존불감과 고려고종제서 등 국보와 다수의 보물을 관람하며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법정스님의 정신이 깃든 무소유길과 불일암을 참배하며 수행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승보종찰의 고즈넉한 도량을 자유롭게 탐방하며 자연과 어우러진 사찰의 아름다움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날 맞이, 입원환아 선물 전달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입원 중인 소아환아들을 위해 선물을 전달했다. 지도법사 혜능스님과 이동석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은 즐거운 어린이날 병원에서 보내야하는 소아환아들을 직접 찾아가 어린이 필기도구 및 과자선물세트 등을 전달하며 쾌유를 기원하고 동심을 위로했다. 이동석 병원장은 “소아환아들과 보호자들에게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라며, 의료진은 빠른 치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부처님오신날 맞아 봉축법회 봉행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18일 법당에서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병원장을 포함한 교원 및 교직원들이 참석해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되새기며 환자들의 건강 회복과 병원 발전, 지역사회의 안녕을 함께 기원했다. 지도법사 보경스님은 “올해 봉축표어인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의 짧은 문장 속에 삶의 방향이 담겨있다”며 “바른 마음으로 신뢰와 질서를 바로 세우고, 다양한 갈등과 아픔을 겪는 환자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나누어야 한다”고 가르침을 전했다.



한방병원 최초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운영 노하우 공유 위해 타 병원 방문 이어져

한방병원 최초로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가운데, 운영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타 한방

병원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우석대학교의료원 산하 우석대학교 부속 전주 한방병원 관계자들은 병원을 방문해 호스피스 전문기관 운영 현황과 준비 과정, 진료 및 돌봄 체계를 살펴봤다. 방문단은 사업 추진 배경과 운영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학제 협진 체계와 환자·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 주요 사례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방문 관계자는 “운영 노하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향후 호스피스 사업 도입과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분당한방병원 마니회, 성남 연등회 참여 및 의료봉사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불자 모임 ‘마니회’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열린 ‘성남 연등회’ 점등식에 참여해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에서 마니회 회장 금동호 교수는 성남 시를 대표해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발원문을 낭독했다. 이와 함께 병원 간호팀은 행사장 내 의료지원 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 및 봉사활동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금동호 교수는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겨 지역사회와 화합하고, 주민 건강을 위해 의료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시
공덕

비용사 회주 혜운스님, 평생 수행으로 모은 정재 1억 원 불교병원에 회향

안양 비용사 회주 혜운스님이 지난 4월 27일 불교병원의 발전을 발원하며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 혜운스님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나날이 발전해 더 많은 이들에게 자비의 인술을 펼치길 바란다”고 발원하며, 평생 수행으로 모은 소중한 정재를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의료장비 확충에 활용될 예정으로, 불교병원의 미래 성장과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혜 *스님, 불교병원 발전 위해 신관건립기금 1억 원 보시 평생 수행과 자비행을 실천해 온 혜 *스님이 지난 3월 27일 ‘땅 한 평의 원력’ 신관건립기금으로 1억 원을 보시했다. 스님은 몇 년 전 은사스님의 입적 당시에도 어른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5천만 원을 보시한 바 있으며, 이번 보시 역시 불교병원의 미래 발전과 자비의로 실현을 발원하는 깊은 서원으로 회향됐다. 특히 스님은 무주상보시로 익명을 요청하며, 이번 기부가 불교병원의 발전과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진 *스님, 자비의 원력 담아 신관건립기금 1억 원 회사 평생 수행자의 길을 걸어온 진 *스님이 지난 4월 14일 ‘땅 한 평의 원력’ 신관건립기금으로 1억 원을 회사했다. 이번 기부는 스님이 오랜 세월 수행 속에서 한 톨 한 톨 정성껏 모아온 정재를 팔순을 맞아 회향한 것으로, 자비와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청정하게 모아오신 사리 같은 정재를 ‘땅 한 평의 원력’ 신관건립기금으로 회향한 깊은 자비의 실천이다.

선*스님, 노란 보자기에 담은 1억 원 보시, 깊은 울림 전해

선 *스님이 팔순을 맞아 ‘땅 한 평의 원력’ 신관건립기금으로 1억 원을 회사하며 깊은 감동을 전했다. 스님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난 4월 14일 직접 병원을 찾아, 노란 보자기에 정성껏 싸 온 현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지폐를 한 장 한 장 모아 마련한 정재에는 수행자로서 평생 이어온 검소한 삶과 회향의 원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스님의 무주상보시는 앞으로 많은 이들을 위한 치유와 자비의 공간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익명의 기부자, 불교병원 발전을 발원하며 2억 원 쾌척 익명을 요청한 기부자가 지난 3월 31일 불교병원 발전을 발원하면 2억 원을 쾌척했다. 기부자님은 “이름이 알려지는 것보다 불교병원이 중생의 아픔을 보듬는 자비의 도량으로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며 조용한 나눔의 뜻을 전했다. 이번 보시는 병원과의 깊은 인연 속에서 이어진 나눔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 조성과 자비의로 실천을 위해 의미 있게 회향된다.

네 살 어린이 천진불의 서원, ‘땅 한 평의 원력’ 동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3월 18일 병원 내 기부자 라운지에서 ‘땅 한 평의 원력’ 신관건립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네 살 어린이 불자 엄윤경 양과 윤선원 보살이 각각 1평씩 총 216만 원을 보시했다. 특히 이번 기부는 어린 불자의 천진한 발원이 담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엄윤경 양은 동국대 전 이사장 법산 큰스님과 인연이 있는 불자 가정에서 자라며 보시의 뜻을 이어오고 있다.

(재)법보선원, 불교병원 발전 위해 1억 원 보시

(재)법보선원이 지난 2월 10일 불교병원 발전을 발원하며 1억 원을 기부했다. (재)법보선원은 송담 큰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의 깊은 원력으로 지난 2021년 4월 13일 로봇수술시스템 구축 지정기금으로 40억 원을 약정했으며, 누적 37억 원의 소중한 정재를 회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 12월 9일 ‘송담 로봇수술센터’를 개소해 현재까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번 기부 역시 불교병원의 첨단 의료 환경 조성 의료불사로 소중히 회향되고 있다.

언제나 동국대학교병원을 지켜봐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기부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익명	200,000,000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2,190,572	박보정	1,080,000
(재)법보선원	100,000,000	경옥스님	2,160,000	박연수	1,080,000
선 * 스님	100,000,000	김진영	2,160,000	박은희	1,080,000
진 * 스님	100,000,000	여련화	2,160,000	백남임	1,080,000
혜 * 스님	100,000,000	익명의 스님	2,160,000	보명스님	1,080,000
혜운스님	100,000,000	탄하스님	2,160,000	보인스님	1,080,000
서비스마스터(주)	90,000,000	성주스님	2,000,000	성 * 스님	1,080,000
윤 * 희	50,000,000	이 * 정	2,000,000	성진스님	1,080,000
이위재	30,000,000	박완임	1,540,000	성총스님	1,080,000
박 * 금	20,150,000	김미경	1,520,000	시운스님	1,080,000
백수활	20,000,000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1,500,000	안민우	1,080,000
인지사	16,200,000	이주현	1,405,000	엄윤경	1,080,000
(주)아라니아	15,000,000	권법선	1,380,000	엄태식	1,080,000
현인스님	11,000,000	주은자	1,300,000	윤선원	1,080,000
자윤스님	10,890,000	대구광역시 중구보건소	1,225,400	이호	1,080,000
故정화스님	10,800,000	박창훈	1,180,000	정건스님	1,080,000
명진스님	10,800,000	손정효	1,180,000	지원스님	1,080,000
상득스님	10,800,000	이성근	1,180,000	지원스님	1,080,000
김국종	10,000,000	대원스님	1,170,000	지종스님	1,080,000
김대원	10,000,000	법 * 스님	1,170,000	청암스님	1,080,000
성법스님	10,000,000	정원스님	1,170,000	현무스님	1,080,000
익명의 스님	10,000,000	정은경	1,170,000	현법스님	1,080,000
익명의 스님	10,000,000	지련스님	1,170,000	현석스님	1,080,000
정건스님	10,000,000	보경스님	1,150,000	혜등스님	1,080,000
각광스님	5,400,000	성학스님	1,140,000	혜현스님	1,080,000
법인스님	5,400,000	효전스님	1,120,000	효탄스님	1,080,000
현원스님	5,400,000	한연수	1,100,000	강명자	1,000,000
지혜스님	5,000,000	고미소	1,080,000	강민정	1,000,000
최성윤	5,000,000	광륜사	1,080,000	본연스님	1,000,000
혜명스님	5,000,000	김경미	1,080,000	설주스님	1,000,000
하형근	4,590,000	김태경	1,080,000	은일스님	1,000,000
백용해	4,330,000	김하경	1,080,000	이명규	1,000,000
생명나눔 대구경북지역	4,000,000	김홍순	1,080,000	이애영	1,000,000
보연스님	3,240,000	김희욱	1,080,000	이종극	1,000,000
지범스님	3,240,000	남지형	1,080,000	전*순	1,000,000
돈관스님	3,000,000	다래스님	1,080,000	정안스님	1,000,000
포항시 북구보건소	2,854,950	명호스님	1,080,000	쿠 * 주식회사	1,000,000
이해원	2,360,000	묘각스님	1,080,000	한혜숙	1,000,000
정오스님	2,200,000	박민정	1,080,000	허미혜	1,000,000

(단위 : 원)

[기간 : 2026. 2. 1. ~ 2026. 4. 30.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학교병원 대외협력홍보팀 031-961-90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gil

퀴즈

아이의 성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키다. 하지만 성장기에는 사춘기 발달, 척추와 하지 정렬, 자세와 체형 변화도 함께 진행된다. 이처럼 여러 신체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시기에는 키 성장이나 자세 문제만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이러한 성장기의 특성을 고려해 소아·청소년의 성장과 체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를 운영하고 있다.

위 문장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의견

불교계 인사와 동국대학교 동문, 불자, 일반 독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 콘텐츠가 실리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통해 병원과 지역사회, 불교의 가치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진솔한 이야기가 함께 담긴다면 원보만의 따뜻한 공감과 의미도 한층 깊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세대와 분야의 목소리를 통해 읽는 재미와 공감의 폭이 더욱 넓어지길 기대합니다.

김명★ 님

칭찬

저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님께 고관절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앞이 캄캄했던, 그런 저를 일으켜 세워 고관절 수술로 다시 세상을 걸을 수 있게 해주신 교수님. 교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인술(仁術). 그것은 저에게 새 삶을 열어주는 선물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저에게 다시 찾아주신 교수님. 한시도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교수님 앞날에 늘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조금★ 님

퀴즈의 정답, 다양한 의견, 칭찬글을 작성하여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지난호 퀴즈 정답 : 땅 한 평의 원력
정답자 : 김경★

참여
방법

- 1 참여 내용과 이름, 전화번호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okuon@dumc.or.kr)
- 2 퀴즈 / 의견 / 칭찬 중 택 1 참여 가능합니다.
- 3 퀴즈 정답 및 선정된 내용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대표자 :)	☐ 익명요청 (모든 홍보물에 익명으로 표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음)
본 의료원과의 관계 (※ 중복 체크 가능)	☐ 불교계 (☐ 스님 ☐ 불자) ☐ 일반 (☐ 환자 ☐ 보호자) ☐ 교직원 ☐ 동문 ☐ 기타 ()			
직장명	부서	직위		
우편물 수령주소	☐ 자택 ☐ 사찰 ☐ 직장			
휴대폰번호	010 —	유선전화		

약정

약정액	현금	원 (₩)	☐ 현물기부(원)상당	
약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월()원씩 / 총()회
기부금 용도	☐ 의료원(병원 · 대학) 발전기금 ☐ 지정기금 (지정) ☐ 병원발전기금 (☐ 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 ☐ 경주병원 ☐ 분당한방병원)			

납부방법

본인 자동이체 신청	월정기납 : 매월 ()일 예금주 : 이체은행 : 본인 자동이체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입금방법 (☐ 일시납 ☐ 분납) 입금자명 : ☐ 동 국 대 학 교 일 산 병 원 ▶ 국민은행 778037-00-000011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동국대학교일산병원(신관건립기금) ▶ 국민은행 778037-00-000347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동 국 대 학 교 일 산 한 방 병 원 ▶ 국민은행 778001-00-059986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한의원 ▶ 우리은행 1005-202-076965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 동 국 대 학 교 분 당 한 방 병 원 ▶ 국민은행 368137-01-001162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분당)			
자동이체(CMS)	출금일 : 매월() ☐ 1일 ☐ 18일 ☐ 25일 (총)원 예금주 : ☐ 기부자와 같음 은행명 : 계좌번호 :			
급여공제	사번 : (※ 재직 교직원에 한함)			

정보동의
☐ 약정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기부금 납입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기부자관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수집목적 : 기부금 영수증 발행 / 보유기간 : 5년)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자동이체 동의여부 통지 안내 : 효성애프リエイト㈜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예금주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또는 LMS)로 통지합니다.
☐ 후원자는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상기와 같이(효성애프リエイト㈜, 국세청(기부금 세제혜택 근거자료)동의합니다.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기부(약정)합니다.			
기부(약정)인 :			서명(인)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귀하

- 동국대학교의료원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나눔의 기쁨과 더불어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약정서 송부** : 주소 ▶ 10326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 이메일 ▶ hongbo@dumc.or.kr / 팩스 ▶ 031·961·9239
- **문 의** : 동국대학교병원 대외협력홍보팀 발전기금 담당 031·961·9000

보내는 분

주소

연락처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24. 9. 1. ~ 2026. 8. 31.

고양일산우체국
제269호

gil

good in life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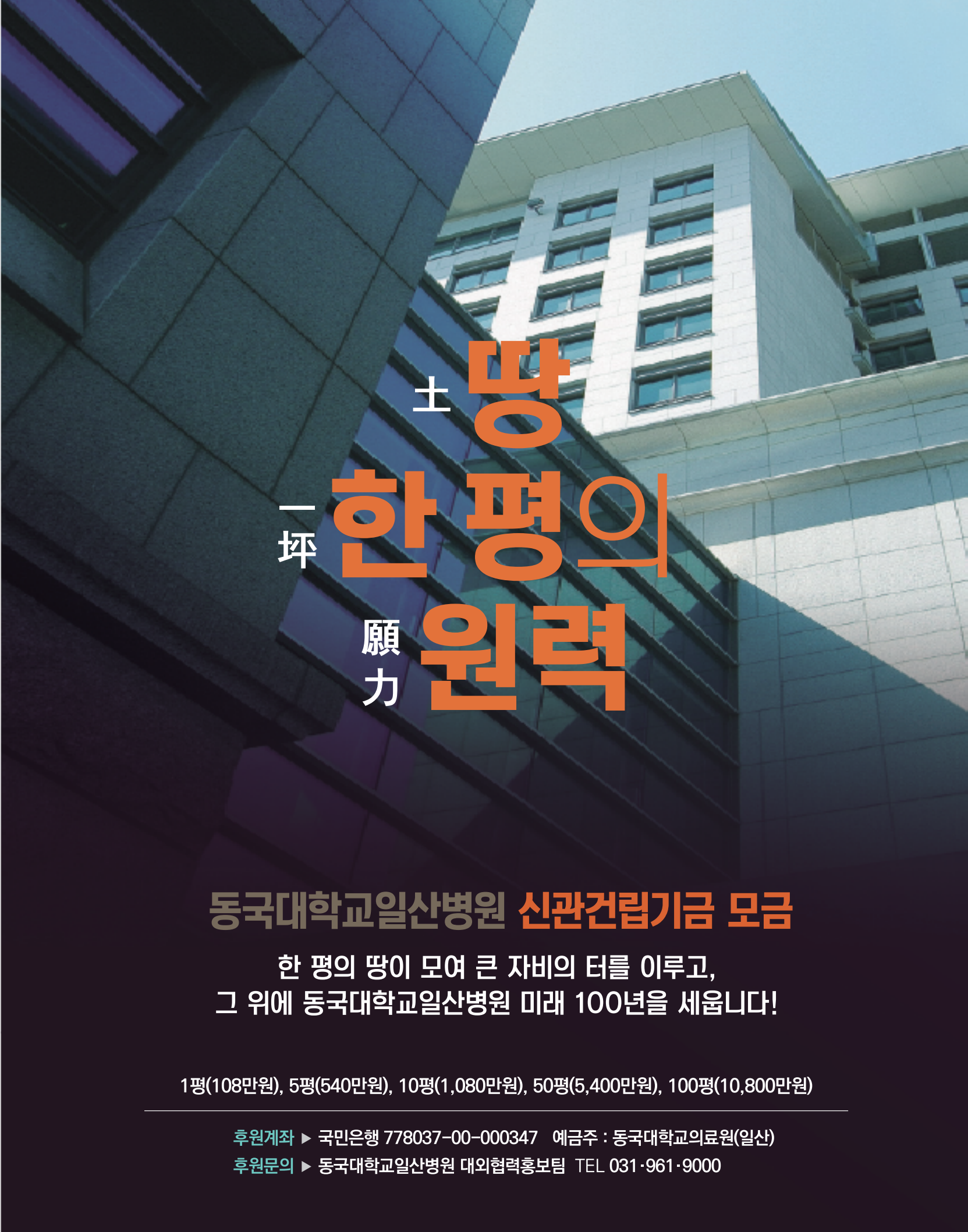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마음이 다치고, 몸이 아파도 사는 게 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일상이 늘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힘겹고 지칠 때도 많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취청일 때 손을 내밀어주고 기대고 싶을 때 어깨를 내주고
지친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동국대학교병원의 마음이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土 坪

一 坪

願 力

한 평의
원력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관건립기금 모금**

한 평의 땅이 모여 큰 자비의 터를 이루고,
그 위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미래 100년을 세웁니다!

1평(108만원), 5평(540만원), 10평(1,080만원), 50평(5,400만원), 100평(10,800만원)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037-00-000347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후원문의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대외협력홍보팀 TEL 031·961·9000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생명존중과 자비의료실천으로
부처님 법 전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대표전화 1577. 7000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대표전화 054. 748. 9300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대표전화 031. 710. 3700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